

#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

Community Education  
for the People of God

문선재

## 이끄는 말

1. '하나님 백성'과 '예수의 제자들'
2.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
3.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육원리
4.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육방법
5.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육내용

## 맺는 말

\* 본고는 1991년 8월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회 때 발표한 논문이다.



문선재,

1934년 생으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으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강사(1964 ~ 1966)와 동대학의 교육연구소 연구원(1965 ~ 1969)으로 일한 바 있으며, 강원중고등학교 교감(1970 ~ 1973)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1973년 이래 강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교무처장, 총장직무 대리,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Abstract**

Educational process of Christian communities may be divided into three essential principles: life-to-life transference, spiritual disciplines, and accountability.

Life transference occurs when a person shares wisdom, knowledge, experience, and maturity with another. Although learning occurs generally in structured situations, it also takes place in informal situations during the normal daily life in the community. Some things are easier caught than taught.

Spiritual disciplines are formed eight essential parts which consist of Bible study, Scripture memory, fellowship with others, the discipline of giving, of prayer, of fasting, of public worship, and the practice of such spiritual disciplines. Among these eight disciplines Bible study is core element to integrate other parts.

Accountability is essential because mankind is fallen. Sin has affected human motives and desires. As a result, Christians need to be accountable to other believers in order to help them do what they really desire to do and that which they know God desires them to do. Being accountable means that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care enough for one another to hold each other responsible for practices which result in a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God, growth in His likeness, and accomplishment of His work in the world.

Further, in this thesis I have proposed an outline of curriculum formation for Christian university as an academic community of the people of God.

## 이끄는 말

“형성”(formation)과 “변환”(transformation)이 선교 2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sup>1)</sup> “형성”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룸이요, “변환”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바뀔을 뜻하는 것으로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한 형편으로 이 모두를 교육사역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과업들이다.<sup>2)</sup>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산 위에 세운 성”으로서 사회변화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선구적 사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속의 거센물결—세속화, 산업화,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타류에 휘말려 교회도 오히려 기업화되고, 개교회적 분파주의, 기복신앙의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를 불과 10년을 남겨두고 인류는 참으로 숨가쁜 “역사의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인간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동체’를 건설해 보려는 끈질긴 노력도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세계 시장경제에 편입되고, 공산주의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며, 계획경제 대신에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주의”의 이상은 이제 무너진듯이 보인다. 그 반사 이익을 개인주의와 자유경쟁을 신조로 삼는 ‘자본주의’ 쪽에서 보고 있지만 이 쪽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각종 범죄—성도덕의 문란, 마약, 매춘, 투기, 매수, 사기, 절도, 살인 등 이른바 도덕적 위기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물질지상’, ‘자본주의’의 이상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밀 유지가 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탕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1) C. E. Nelson,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교회와 교육선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교육대회 강연집, 1984, pp. 41 ~ 64.

2) L. O. Richards,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Michigan : Zondervan Coporation, 1975, pp. 129 ~ 164.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모든 일들에서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도덕적 위기는 이제 특권층이나 밑바닥의 범법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율황불 세례를 받고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물질이 부족했거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sup>3)</sup> 그런데 성경은 한 사회가 망한 이유뿐 아니라 살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고 있다.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4)</sup> 실로 우리는 의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 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sup>5)</sup>고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의인을 찾고, 의인을 기르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예외 없이 위기의 극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올바른 인재, 즉 의인을 길러내야 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다. 올바른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근본적 과제이다.

기독교대학 설립의 요청과 구상은 이러한 절실한 필요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속역사와 천국의 건설 등 일련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변화”다.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교육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

3) 창 6:5~7.

4) 창 18:32.

5) 창 18:19.

율법을 지키고 그의 주권에 순복하고 자진해서 그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개념은 다양하나 칼빈대학 학장인 안토니 디크마(Anthony J. Diekema)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기독교대학이란 하나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환경으로서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 전체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대학이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는 단체이다. …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의에 한 가지 사실을 첨가해야만 한다. 곧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는 체험적이며 인격적인 역동적 실체’라는 것이다.”<sup>6)</sup>

그의 말과 같이 기독교대학의 특징은 기독교인이 공동체로서 삶과 삶의 인격적 만남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있다. 그래서 현대문명을 밀바다에서부터 갈아엎는 문화변혁의 선구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독교대학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형성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택하심과 훈련,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명령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sup>7)</sup>에 이르는 예수님의 명령에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학문에 전념하는 세속대학과는 다르다. 학문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과 그의 명령을 실천으로 수행하는 기독교인의 공동체이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중보적 사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구약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형성과 신약에서의

6) 안토니 디크마 저, 홍치모 옮김, 「기독교 대학의 지성과 사명」, 서울: 성광문화사, pp 108 ~ 109

7) 마 28:19 ~ 20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살펴 보고 그 공통적인 교육방식을 고찰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나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과 그것에서 나오는 “교육관”, “교육의 원리”와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내용”까지를 살펴 봄으로서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그 초점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교육방식을 탐구하는데 있다. 오늘날 교육의 지도적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식-지식전달의 패러다임(schooling-instructional paradigm)이 인간을 통합적인 인격체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과 아울러, 사람들의 깊은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사회’를 이룩하려는 인간 본래의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신앙-문화 공동체 교육 패러다임(com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sup>8)</sup>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이 글은 이 모형의 보완을 위해서 그 원리와 내용을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기독교대학은 지금까지의 모든 대학교육이 지식치중, 수업치중의 학교식-지식전달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인 신앙-문화 공동체의 모형을 정립함으로써 문화변혁을 이 땅 위에 성취시키는 선구적 학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안적, 시도적인 글이 될 것이다.

## 1. ‘하나님 백성’과 ‘예수의 제자들’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 백성의 형성’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8) T.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aw, 1980.

C. E. Nelson, *Where Faith Begins*, Atlanta: John Knox Press, 1967.

J. H. Westerhof,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Minneapolis, Min: Seabury Press, 1976. 등은 신앙 공동체적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한 시도적인 논문이다.

구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담의 타락 직후 하나님은 뱀(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sup>9)</sup>고 말씀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계획을 은연 중 예고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민족과 국가를 이루실 것으로 구체화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의 언약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 갈데아 우르에 사는 아브람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sup>10)</sup>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족속 70인을 애굽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60만의 큰 민족을 이루신다<sup>11)</sup>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시고 그의 이름을 밝히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역경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신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사건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개인적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더불어 공동체로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의 은혜로 이루신 애굽에서의 해방이 기초가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목격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sup>12)</sup>

9) 창 3:15후.

10) 창 12:1, 2

11) 창 46:27.

12) 이하는 Allan Coppedge, *The Biblical Principles of Discipleship*, Michigan :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유월절 사건에서 보듯이 1)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속하기 위하여 다른 대속물을 받으신다. 2) 어린양의 피가 생명의 상징이 된다. 3)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화목은 희생양의 고기로 상징된다. 4)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노예와 구속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해방된 것이 기초가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의 물질적 필요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인간세상을 관망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물(출 15:17)과 만나와 매추리(출 16장)를 친히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셨다.

셋째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관계를 맺고 그의 백성으로 살 것을 맹세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기초가 된다.

이 계약의 목적은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것, 2) 하나님을 섬길 것, 3)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 등에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계약의 핵심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도로서 인간을 1)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과, 2) 거룩한 교제를 서로 나누며, 3)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격적 현존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데로 연결된다. 구약이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예고한 것이라면, 신약은 구세주의 나타나심이고, 구약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예언이라면 신약은 그 성취요 완성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 창조 이후 타락의 인간 역사가 끝나

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요, 죄지을 때마다 사람대신 속죄양을 수없이 잡아 피흘림으로 대속했던 부분적 속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화목하는 길-예수님의 영단번의 피흘림과 재물로 모든 인간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여신 데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과 신약에서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있어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자가 되는 기초는 예수의 무한한 은혜로 이룬 구속에 의함이고, 구속의 목적은 1) 하나님을 섬기고, 2)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sup>13)</sup> 1)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왕국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며, 2)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두번째 요소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의 긴밀한 친교이며, 3) 세번째는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의 인격적 만남(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섬김의 생활을 위하여 기꺼이 훈련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훈련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선교사로, 교사로, 섬기는 자로, 제자들을 만드는 자로 헌신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이 세상의 정의와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친히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 2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일

13) 윌 글, pp.39~49를 요약함.

하신 만물의 근원자, 그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자(I am that I am)’라 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sup>14)</sup> 인간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sup>15)</sup>는 소위 문화명령을 주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와 동등하게 되려는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 이 타락한 인간과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속역사가 곧 오늘의 세계역사라는 것이다. 즉 창조-타락-구속의 틀로 기독교 세계관은 이루어져 있다.

이 세계관이 갖는 영향은 인간의 삶과 인간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그릇된 세계관에서는 그릇된 인간과 그릇된 문화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인간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때 이 세계는 올바른 문화와 올바른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세계관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이 되는 틀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전제’ 또는 ‘생각의 틀’을 의미한다. 교육은 한마디로 이 ‘생각의 틀’을 바로 세워주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제’ 위에 세계관이 형성된다. 인생과 세상의 의미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주변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견해는 뚜렷한 논리적 체계가 없는 전제들 위에 세워져 있다. 전제는 공리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에서 합리적이기보다 신앙적이다. 이 ‘생각의 틀’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교육이며 모든 관념체계는 어릴 때 형성되는 ‘생각의 틀’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교육의 핵심은 바른 ‘생각의 틀’, 즉 바른 ‘세계관’을 심어 주는 일이다.

오늘의 학교교육이 이 일을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편향된 도구교육으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일을 교회와 기독교대

14) 창 1:1.

15) 창 2:27 ~ 28.

학이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기존대학에서는 진화사상, 적자생존, 유물주의, 프로이드의 사상, 상대주의, 과학적 실증주의 등 19세기의 사상적 유산을 무책임하게 소개해 왔으며, 그 이론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 즉 그 세계관이 지니고 있는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할 힘을 기르지 못했다. 기존의 기독교대학마저도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을 심는데는 실패했다. 대학세계에 만연한 그 관념체계들은 기껏해야 미지의 세계나 불가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에 의한 비약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지 오래다.

인간성에 대한 인본주의자들의 낙관론도 서양문명의 끔찍한 비인도적인 속성이 드러남으로서 할 말을 잃었다. 악을 적나라하게 본 현대인은 악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진실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19세기적 '인류의 진보'의 확신도 인본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꿈도 무너졌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가 올바른 세계관을 심고 올바른 사람을 길러 내는데 앞장 설 때가 되었다. 교회는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도 이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 한국교회가 만약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초기 교회의 열심을 다시 회복해서 올바른 인간, 의인을 기르는 교육에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면 이 사회와 세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한국교회는 서구적 인본주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과 모든 교인들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인본주의적, 과학주의적 사상의 허구성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때 한국교회는 정통종교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맹목적 믿음에는 강하나 사고에는 약한 기독교인은 혼돈된 오늘의 관념들과 사상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다. 믿음도 강하고 사고도 분명한 '사고하는 기독교인'을 길러내야 한다.

둘째로,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세계관과 역사관을 확립

해야 한다. 이 일은 고도의 학문적 체계화와 실천적 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교단적, 총회적 노력 이상의 전문기관의 설립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기독교대학이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왜 또 새로운 대학을” 하고 의문을 제기할 분들이 있겠으나,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까지 세속화 되어서 무신론적이고 유희론적인 학문과 지성이 연마되고 있으며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차 있음을 본다. 이 나라의 기독교 실업인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그 필요를 인식한다면 이 땅 위에 진정한 기독교대학 하나를 만들 수 없겠는가?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퇴폐한 오늘의 문화를 변혁시키는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공동체적 삶과 학문의 연마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의 모형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오늘의 학교식·지식전달의 모형을 과감히 탈피하고 신앙·문화 공동체로서 더불어 함께 오늘의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시도적이기는 하나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 3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육원리

우선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육원리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백성의 ‘생각의 틀’을 ‘믿음의 틀’로 바꾸 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구원계획의 원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지식’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sup>16)</sup> 인간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적이며 문화변혁의 선구자를

16) 히 11:1~3

육성하는데는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생각인 ‘믿음의 틀’로 철저히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sup>17)</sup>고 명령하셨다. 이 신명기 6:4~9을 기독교 교육의 대강령이라고 할 만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 원리였다.

셋째로 하나님은 지식의 근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은 하나님을 앎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지식은 앎과 행함이 하나가 된 행동하는 지식을 의미하였다. 오늘날 ‘앎은 곧 행함’(知即行)이라고 믿었던 소크라테스 이후의 교육 신조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사람이 행동에는 더 소극적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의인은 앎을 행함으로 일치시키는 사람이다.

오늘의 지성인들이 앎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비굴한 이중적 인격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육의 방식이 지식위주의, 개념위주의, 행동을 분리시킨 교육의 방식을 방치해둔 데 있다. 앎과 행함이 하나가 된 통합교육이 오늘에는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더불어 사는,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공동체요 그것이 율법 실천의 대강령이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섬김으

---

17) 신 6:4~9

로서 나타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용서하되 일흔번씩 일곱번이라고 하라<sup>18)</sup> 고 하셨으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sup>19)</sup> 고 하셨다. ‘섬김의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요 그것은 실천으로서만 체득될 수 있는 원리다.

이 ‘사랑의 공동체’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 깊이 숨어있는 근원적 욕구요, 천국을 바라는 욕구이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비워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빈 공간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좌절할 때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천국을 위한 교육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 세속의 학교교육의 방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교육방법의 특징을 알아보자.

#### 4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육방법

필자는 모두에서 오늘의 교육적 파탄이 학교식-지식전달의 패러다임에 근본 원인이 있으며, 기독교 교육은 이를 넘어서는 신앙-문화공동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하실 때 오늘날처럼 개념과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의 ‘능한 손’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훈련시키셨다. 그 방법들을 몇 가지 간추려 보기로 하겠다.<sup>20)</sup>

첫째로 생명전달의 법칙을 들 수 있다. 일반교육이 개념전달이요, 또 면 대 면의 소집단(face to face small group)으로서 교육의 효율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교육은 면 대 면의 관계를 넘어서 생명 대 생명(life to life transference)의 만남을 통한 인간변화를 원리로 삼는다.

18) 마 18:22

19) 마 22:28

20) Allan Coppedge의 원 글 pp 61 ~ 77을 요약하고, 필자의 견해를 첨가하였음.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긴 설명을 하시지 않고 “와 보라”고 하셨으며, 제자들은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교사의 어려움과 책임이 있다. 기독교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교수, 행정가, 학생, 학부모 모두의 삶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사실을 성경에서 본다. 함께 살며 본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 여기에 더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제자된 신실한 구성원들이 신령한 교제를 늘 나누도록 하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결집로 나가는 탈선을 막고,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오늘의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결함은 이 생명 전달의 핵심이 빠져있다. 이것을 여하히 회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다.

둘째 법칙은 영성훈련이다. 영성훈련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나 그 핵심은 여덟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하나님 말씀 연구, 2) 성경요절의 암송훈련, 3) 영적교제와 열린 마음의 친교, 4) 남에게 나를 내어주는 섬김의 훈련, 5) 기도훈련, 6) 금식훈련, 7) 공중예배의 훈련, 8) 영적훈련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작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세번째 법칙은 책무성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직분에 대한 책무 완수를 점검하고, 또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책무성은 영성훈련에 헌신하는 것과 생명에서 생명의 전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언제나 낙담하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 있으며, 죄는 인간의 동기와 욕망을 타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무, 즉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 예수의 형상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일, 그리고 맡은 직분을 충성되이 수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코피지(Allan Coppedge)의 강조점은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전달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넬슨(C. E. Nelson)은 이를 보다 넓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했는데 문화가 전달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표현했다. 이 신앙이 어디에서 전달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마음과 경험, 자아와 교회의 네 가지 범주를 지적하고 자연적인 신앙전달의 기관은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 공동체는 온전히 거둬난 교수, 학생, 행정가로 구성되는 것이 첫째 요건이요, 시작할 때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신앙고백이 변질되지 말아야 소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넬슨은 이 공동체 생활에서 신앙을 육성하는 중요기관이 예배와 친교, 그리고 성서연구와 당면하는 부정의와 쟁점들과의 대면이 윤리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다.<sup>21)</sup> 웨스터호프(J. H. Westerhof 111)는 신앙·문화화 공동체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교회교육의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사역을 뒷바침하고 있는 패러다임 혹은 모형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패러다임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힘써야 하는지를 언어의 수단으로 예비해 주는 것이다…… 학교식 수업 패러다임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교수와 연구와 실행과 자료개발에 계속 묶어 놓음으로서 새로운 여러가지 가능성에서 우리를 격리시켜 버렸다.”<sup>22)</sup>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예배의식에 어린이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린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결국 코피지나 넬슨이나 웨스터호프가 강조하는 점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신실한 모습을 강조한다.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이며, 이것은 통합된 인격형성에서 기독교

21) C. E. Nelson, *Where Faith Begins*, Atlanta: John Knox Press, 1967, pp. 24 ~ 30, 114 ~ 120.

22) J. H. Westerhof 111.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Minnesota: The Seabury Press, 1976, pp. 6 ~ 7.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것이 된다. 요컨대 기독교대학 공동체의 성공여부는 그 공동체의 믿음의 순수성에서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 5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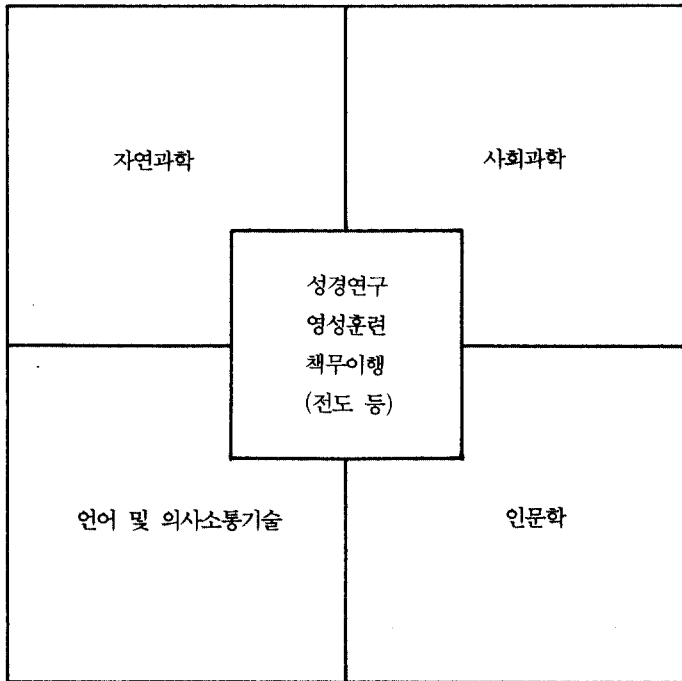
여기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세밀한 교육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그 내용의 골격이 되는 커리큘럼(curriculum)의 편성 원칙만 취급하고자 한다. 시도적인 것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분들의 보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통합성의 원칙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교육방법은 기독교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방법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의 현존을 체험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생활, 그것이 이 공동체의 통합성을 유지해 줄 것이다. 윤곽적으로 표시해서 커리큘럼의 구성은 옆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양교육 우선의 원칙이다. 모든 나라들이 과학교육에 열을 올리고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지구의 생태계는 더욱 손상되고, 인간상실의 중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두어야 한다. 인간성을 원래의 모습(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인격교육, 교양교육이 기독교대학의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된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얼마나 시험 답안지를 잘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에 따라서 교양교육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을 통해서 현대의 철학, 사상,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이 지닌 여러 잘못된 전제들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 학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배경에 깔려있는 관점을 알지 않으

그림 1. 커리큘럼 구성의 윤곽



자료 : H.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88), p. 73.

면 안될 것이다. 사고하는 창조적 지성을 길러내는 데 교양교육의 핵심이 있다.

셋째는 필수과목은 줄이되, 전공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며 다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야 한다. 더 심오한 학문은 대학원으로 넘기고 학부에서는 통합적 세계관을 가진 전인적 인격과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학은 너무 세분된 전공으로 학과간의 분과주의와 그로 인한 협동연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부과하는 많은 필수 전공과목에 시달려 넓은 안목, 더 창의적인 생각, 인접 학문과의 접촉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졸업학점은 현행 140 이상에서 120 내지 100학점 정도로 줄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더욱 권장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문제해결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의 교육은 개념을 배우다가 끝난다. 그래서 여러 학과의 기본개념을 체계 있게 정리하고, 종이에 잘 옮기는 학생이 A학점을 받는다. 물론 자연과학 계열은 실험이 많지만 실험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는 영세한 상태이다. 학문은 개념에서 연역해 들어가는 체계있는 논리성보다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에서 현실의 해결능력과 응용, 그리고 원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 전달식 개념학습이 교육형태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집단 토의식, 대화식, 문제 해결식, 현장 대면식 학습방식과 커리큘럼이 대종을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대로 삶과 실천이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실천적 경험중심의 교육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노동(Arbeit) 중심의 커리큘럼이 되어야 한다. 예수원의 표어에는 “노동은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했다. 양승훈 교수는 노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노동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먼저 성경

은 노동이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법칙이요 명령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시 옛새동안 일하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 그에 따라 십계명에서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함으로서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밝히고 있다(출 20 : 9). 여기서 옛새동안, 힘써, 네게 주어 진,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노동의 범위, 본질, 당위성 등을 다양하게 함축한 좋은 표현이다. -----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노동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람비 잘만(Zalman)이 ‘나는 나의 목수 연장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듯이 ----- 노동은 곧 하나님과의 동역이며(요 15 : 1)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 셋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노동은 인생의 의미요 가치가 된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가 있다. 그 달란트는 바로 자기 삶의 의미와 연결된다. 즉 인간은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물론 물어 둔 달란트가 아니라 활용하여 늘린 달란트이다(마 25 : 16). ----- 넷째, 노동은 이웃사랑의 표현이다. 노동은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룩한 사랑의 행위다.”<sup>23)</sup>

기독교 세계관의 노동관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인용한 것은 기독교 대학 공동체에서의 커리큘럼에서 노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찍이 독일의 교육자 나툴프는 초등 8년간의 노작 학교(통일학교)를 공동생활을 하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섯째, 기독교대학은 함께 살며, 일하며, 친교를 나누며,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강의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만한 체계에서,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짜여진 기숙사에서의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아침식사 시간에서부터 하루의 일과와 밤의 취침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상호협력과 연구와 교수와 학습이 통합된 인격과 학문도야에 영향을 미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교육의 가장 큰 결함은 개개인으로서 경쟁에는 능하나, 단체로서 협동에는 약하다는 점이다. 협동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간을 기독교

23)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대구: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9, pp 117 ~ 120에서 인용.

교대학은 배출해 내야 한다. 이것은 내용뿐 아니라 평가방법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고안이 필요하다. 오늘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제는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시험은 무감독시험으로, 필기시험보다는 보고서와 개개인의 능력과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두시험으로... 등 일대혁신이 요청된다.

##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육의 원리와 원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세계관과 거기서 도출되는 교육의 모습을 윤곽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 일은 우리가 구상하는 기독교대학의 교육체계를 형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성경과 학문영역에서 밝은 식견을 가진 분들의 더 깊은 연구와 협력으로 그 청사진이 그려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이 미약한 필자의 바램이다. 많은 비판과 조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빌 2:13)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학 설립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고 그가 직접 행하시는 사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구절을 아침마다 외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와 대학들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속히 기독교대학의 계획을 이루소서, 이 땅위에 진정한 당신의 대학을 세우소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대학의 교육체계와 치밀한 커리큘럼이 모든 전공영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내용으로 짜여지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서는 학문적인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차원을 넘어선 학문 수준에서 검증되고 수긍될 수 있는 이론체계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이론과 실천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우주와 세계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교 부지와 건물과 시설도 중요하나 바로 여기 모인 동역회원들에게서 위대한 기독교인 학자가 탄생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 학자가 하나로 뜻을 모으는 일도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통영연구**